

취업미끼 10대소녀 60명 감금 접대부 강요 1천5백만원 갈취

쇼 프로덕션 6명 구속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유령 쇼프로덕션을 차려놓고 여고생 등 10대소녀 60여명을 유인, 서울 영동 일대 유흥업소에서 접대부로 일하게 한 뒤 이들로부터 1천5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윤종일(24·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1461-16)씨 등 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3월 서욱 역삼동 가건물 안에 ‘나

라기획’이라는 유령 프리덕션을 차려놓고 서울시내 디스코장에서 최아무개(18·여고3)양 등 10대소녀 등에게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유인, 서울 용산구 주성동 양지맨션아파트 3동 101호에 집단감금해 놓고 술집 접대부로 내보내 이들로부터 하루에 10만원씩 지금까지 모두 1천5백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다.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5시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출한 최양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